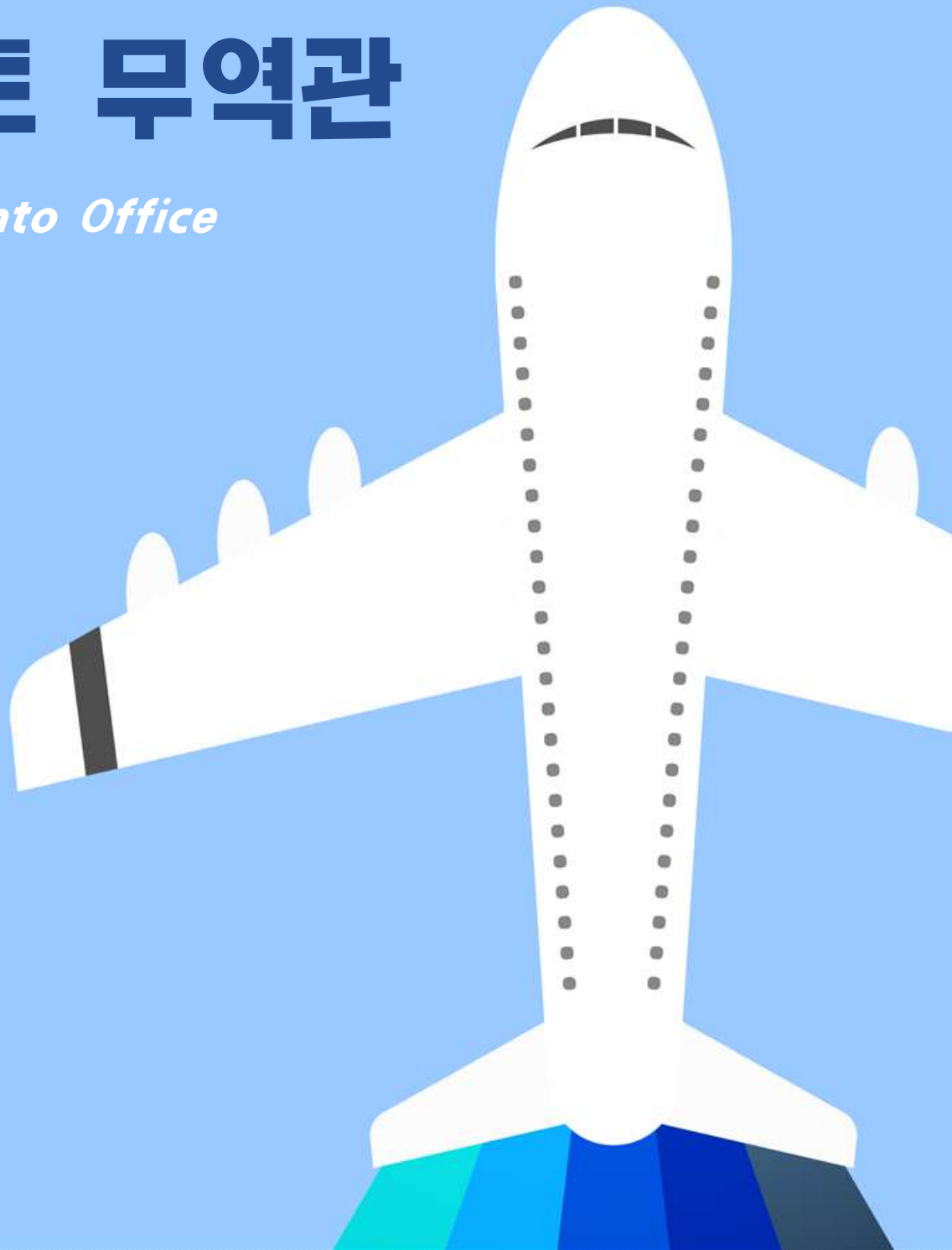


2022 해외출장 가이드

캐나다

토론토 무역관

Kotra Toronto Office



목 차

I. 캐나다 개황	1
II. 주요이슈 및 경제동향	3
III. 한-캐나다 교역동향	11
IV. 현지체류 참고사항	16
V. 무역관 오시는 방법	22
VI. 유관기관 및 숙소/식당	24
VII. 무역관 직원 연락처	27

I. 캐나다 개황

1. 국가 개요

국 가 명	캐나다 (CANADA) ('마을'이라는 뜻의 원주민어 'kanata'에서 유래)
수 도	오타와 (Ottawa) ('교역하다'라는 뜻의 원주민어 'adawe'에서 유래)
면 적	9,984,670 km ² (세계 2위, 한반도 46배)
기 후	온대성 대륙성 (중부내륙지방), 해양성 (태평양·대서양 연안), 한대성 (북극권)
인 구	3,700만 명 (2022년 5월 기준)
연방구성	10개 주 (Province) 및 3개 준주 (Territory)
주요도시	Toronto (655만 명), Montreal (436만 명), Vancouver (274만 명), Calgary (154만 명), Edmonton (147만 명), Ottawa (146만 명) 등
언 어	영어 및 불어 (2개 공용어)
민 족	영국(33%), 프랑스(14%), 독일(10%), 기타 유럽(15%), 아시아(18%), 기타 아프리카·캐리비안 등(10%)
종 교	천주교(32%), 기독교(31%), 무종교(26%), 기타(11%)
국 체	입헌군주국 (영연방)
정 체	의원내각제 (양원제)
화 폐	캐나다 달러 (Dollar) (1.00 CAD ≒ 0.78 USD, 2022년 5월 평균 기준)
건국(독립)일	1867년 7월 1일 (영국으로부터 독립)
국가원수	○ 국가원수: 영국여왕 Elizabeth II
	○ 취임일: 1952.2.6.
	○ 총독: Mary Simon
	○ 취임일: 2021.7.26
	○ 총리: Justin Trudeau
	○ 취임일: 2015.11.4. (재취임: 2021.09.20)

자료: 캐나다 통계청(Statistics Canada) 및 정부 웹사이트

2. 주요 경제지표

구 분	단 위	2018	2019	2020	2021
실질 GDP	US\$ 십억	1,736	1,643	1,670	1,740*
1인당 GDP	US\$	46,399	43,278	47,567	44,500*
경제성장률	%	1.7	-5.4	4.6	3.9*
소비자 물가상승률	%	1.9	0.7	3.4	8.0*
민간소비 증가율	%	3.3	-6.1	8.3	8.0*
실업률	%	5.7	9.5	7.5	5.6*
교역액	US\$ 억	9,002	7,935	9,933	10,756**
수 출	US\$ 억	4,467	3,893	5,035	5,584**
증감률	%	-0.9	-12.8	29.3	10.9**
수 입	US\$ 억	4,534	4,042	4,896	5,173**
증감률	%	-1.4	-10.8	21.1	5.7**
무역수지	US\$ 억	-68	-149	139	411**
해외직접투자(인바운드)	US\$ 억	503	323	748	N/A
증감률	%	15.8	-35.8	131.6	N/A
외환 보유고	US\$ 억	853	904	950	942**
증감률	%	1.7	2.3	5.1	-0.8
총 외채	US\$ 조	2.2	2.4	2.6	N/A
증감률	%	4.7	7.7	8.3	N/A
기준금리	%	1.75	0.25	0.25	1.5**
연평균 환율	C\$/US\$	1.33	1.34	1.25	1.27*

* 2021년 전망치

** 무역통계: 2022년 1-3월 누계, 증감률: 전년 동기 대비 기준, 금리 및 환율: '22.5월 기준
자료 : 캐나다 통계청(Statistics Canada), World Bank, UNCTAD, IMF, OECD, Bank of Canada

II. 주요 이슈 및 경제 동향

1. 주요 이슈

□ 캐나다,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 주최 글로벌 코로나19 정상회의 참석

- 2021년 9월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이 주최한 제1차 글로벌 코로나 정상 회의에 이어 2022년 5월 2차 회의가 개최됨.
 - 해당 회담에는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을 비롯해 공동 주최국인 독일, 벨리즈, 인도네시아, 세네갈 각국 정상들이 참석함.
 - 조 바이든 대통령은 팬데믹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말하며 모든 국가, 공동체를 대상으로 한 백신 접종과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백신 및 부스터샷 공급의 필요성 강조
 - 저스틴 트뤼도 총리는 백신 공급이 더 이상 코로나19 퇴치의 주요 대처 방법이 아니라는 점을 힘주어 말하면서도 백신 접종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 계층의 어려움을 언급함.
 - 저스틴 트뤼도 총리는 코로나19 팬데믹에 캐나다가 기부한 금액은 C\$20억 이상이라고 밝히며 캐나다는 계속해서 국제 사회와 협력하여 세계 보건 안보 강화와 전염병 및 기타 보건 위기에 대응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것이라는 의지를 드러냄.

□ 캐나다 입국 규제 완화

- 2022년 4월 기준 캐나다는 백신 접종 완료자에 한해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없이 캐나다 입국을 허용
 - 공항 도착 시 무작위로 검사를 진행하며 검사 대상자로서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격리 불필요
 - 캐나다로 입국하는 모든 승객은 ArriveCAN 어플리케이션 또는 웹사이트에서 요구하는 정보 제출 필수
 - 백신 미접종자는 캐나다 입국 시 출국 24시간 내에 받은 신속 항원 검사 음성 확인서를 제출 해야만 입국 가능

□ 캐나다,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 편성 및 적극 대응

- 2022년 2월 캐나다 저스틴 트뤼도 총리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에 대한 강력한 규탄을 표하며 제1차 경제 제재 발표
 - 캐나다 정부는 러시아 국채 매입을 금지하고 러시아 정치인, 은행, 기업 등 러시아에 대한 전 방위적 경제 제재 도입 예정
 - 저스틴 트뤼도 총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이것은 명백한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 침해’ 라는 입장을 밝히며 이는 국제법과 유엔 헌장에 따른 국가적 의무를 위반한 행위라고 비난하며 우크라이나 지지 의사를 표명
 - 캐나다는 469명의 캐나다 군인을 유럽 라트비아에 추가 배치하고 우크라이나에 M72 로켓포 4500개와 수류탄 7500발 등 군수 물자를 지원할 예정
 - 캐나다는 2022년도 예산안을 통해 올해 총 C\$6억 2천만 규모의 대출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했으며 2023년까지 우크라이나에 C\$5억 규모의 추가 군사 원조를 제공할 것이라 밝힘.

- 캐나다 이민국은 우크라이나 난민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고 밝히며 우크라이나인에 한해 긴급 여행 허가를 도입하고 최소 2년간 캐나다 체류를 보장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도입
 - 우크라이나인의 비자 및 이민 신청을 우선순위로 두고 무제한으로 신청 받을 것이라 밝힘.
 - 해당 비자를 통해 캐나다로 입국한 우크라이나인들은 캐나다에서 학업 또는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가지게 되며, 캐나다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들은 간소화된 특별 가족 후원 이민을 통해 캐나다로 우크라이나인 가족들을 데려올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

□ 집값 안정화를 위한 주택규제 및 지원 예산 편성

- 2022년 캐나다 예산안에 따르면 캐나다는 집값 안정화를 위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캐나다 시민권자의 주택 보유율 증대를 위한 주택 규제 시행 예정
 - 캐나다의 주택 가격은 지난 2년 동안 50% 이상 상승했으며 이에 따라 캐나다 정부는 2022년도 예산안에 C\$101억 4000만 규모의 예산을 편성
 - 캐나다 정부는 집값 상승 요인을 공급 부족이라 보며 향후 10년간 주택 공급을 두 배 이상 확대할 계획을 밝힘.

- 2년간 외국 영리 기업 또는 캐나다 비영주권자, 비시민권자인 사람들의 주거용 부동산 취득이 제한되며 주거용 부동산, 주택시장 불법 활동 단속이 강화되고 투기에 대한 세금이 부과될 예정
- 실거주 하지 않는 구매자 또는 해당 주택이 공실일 경우 과소 사용에 대한 주택세(Underused Housing Tax)가 매겨질 예정이며 이는 난민, 캐나다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 영주권을 취득 중인 유학생, 캐나다에 거주하며 취업 비자를 가진 외국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음.

□ 캐나다-중국 간 갈등 심화로 긴장관계 지속될 전망

- 2018년 12월, 미국 정부의 요청으로 밴쿠버에서 명완저우(Meng Wanzhou) 화웨이 부회장이 체포된 이후 캐나다와 중국 간 외교적 긴장이 고조됨.
 - 이후, 중국은 캐나다 국적의 사업가 마이클 스파버(Michael Spavor)와 전 외교관 출신의 캐나다인 마이클 코브릭(Michael Kovrig)을 억류 및 구금함.
- 2020년 5월 27일,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 대법원의 명완저우 범죄인 인도 재판에서 명완저우 측의 석방 요구가 기각됨.
 - 2020년 6월 24일, 중국 정부는 화웨이 부회장 석방과 중국 내 억류된 두 명의 캐나다인 맞교환을 요구함.
 - 2021년 9월 캐나다는 명완저우 부회장을 3년 만에 석방하고 이어 중국도 바로 캐나다인 두 명을 풀어줬으나 양국의 사이는 여전히 회복되지 못함.
- 캐나다 정부가 ‘심각한 안보 우려’를 이유로 화웨이, ZTE 등 중국 통신장비 제조사의 5세대(5G) 기기 사용을 금지하기로 결정
 - 미국은 지난 2019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재직 시절, 안보를 위협하는 블랙리스트에 화웨이를 추가해 미국 기업이 화웨이와 거래 시 정부 승인을 받도록 함.
 - 미국을 중심으로 한 기밀정보 공유 동맹체인 ‘파이브 아이즈(Five Eyes)의 중국 견제 움직임에 캐나다도 합류한 셈
 - 캐나다 정부 누리집에 따르면 기업들은 2024년 6월 28일까지 화웨이와 ZTE에서 5G 장비를 제거하거나 종료해야 함
 - 4G 사업도 마찬가지로 기존 화웨이와 ZTE 장비와 관리 서비스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제거하거나 사용을 중단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엔 캐나다 정부에서 지급하는 통신사업 관련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고 밝힘

□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예산 증액

- 2020년 11월, 저스틴 트뤼도 총리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최대한 줄이고 남은 온실가스를 저장 및 활용하여 실질적인 배출량이 0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는 ‘2050 탄소중립(Net-Zero) 달성 계획’ 발표
 -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05년 대비 40~50%가량 줄이고, 최종적으로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 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함.
- 2022년 캐나다 예산안에 따르면 녹색 성장을 중심으로 한 친환경 기술 도입 및 활성화 방안을 포함해 주택, 농업, 산업, 투자 등 다양한 탄소중립 관련 예산 편성
 - 2020년 12월 전략혁신기금을 통해 향후 5년간 탈탄소 미래기술 개발과 클린 테크 육성에 약 C\$30억 규모의 투자를 포함한 탄소중립 가속화 기금(Net-Zero Accelerator) 조성
 - 향후 7년간 C\$50억을 추가 편성해 탄소 배출에 의존하는 기존 산업들이 친환경 기술을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 친환경 경제 전환을 가속화하겠다는 전략을 밝힘.
- 캐나다는 저탄소 시대에 중요한 기술 중 하나로 주목받고 있는 이산화탄소 ‘포집 활용 및 저장(CCUS, 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기술을 미국과 더불어 선도적인 기술 보유
 -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배출된 탄소를 경제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한 기술로는 대기에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하고 지층에 저장하는 ‘포집저장(CCS, Carbon Capture and Storage)’과 이산화탄소를 유용한 물질로 전환하여 재사용하는 ‘포집 활용 및 저장(CCUS, 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이 있음
 - 캐나다는 연간 700만 톤의 이산화탄소 포집이 가능한 5개의 대규모 CCS 시설을 보유

□ 캐나다, 36년 만에 월드컵 본선 진출

- 2022년 3월 28일 캐나다 토론토에 위치한 BMO필드에서 2022 카타르 월드컵 북중미 예선 13차전에서 캐나다는 자메이카를 상대로 4-0 승리를 기록
 - 전반 13분 카일 라린(Cyle Larin)의 선제골을 시작으로 전반 44분 타운

- 부캐년(Tajon Buchanan)이 추가골을 기록하며 2-0으로 전반전 종료
 - 후반 38분 주니어 호일렛(Junior Hoilett)의 추가골, 후반 43분 자메이카의 자책골로 4-0 캐나다 최종 승리
 - 캐나다 축구 대표팀 미드필더 조나단 오소리오(Jonathan Osorio)는 “꿈이 이뤄졌다”면서 “오늘은 불가능이 이루어진 날”이라 전함.
- 1986년 멕시코 월드컵 이후 두 번째 월드컵 본선 진출이며, 북중미에서는 캐나다, 미국, 멕시코 총 3개 팀이 2022 카타르 월드컵 본선에 진출
 - 캐나다의 2022 카타르 월드컵 본선 진출은 알폰소 데이비스(Alphonso Davies), 타운 부캐년(Tajon Buchanan), 조나단 데이비드(Jonathan David) 등의 이른바 ‘황금세대’의 활약과 2026년 캐나다, 미국, 멕시코가 공동 개최하는 월드컵 유치와 맞물려 대표팀의 경기력을 높이기 위해 힘쓴 캐나다 축구 협회의 노력이 빛을 발했다는 평가를 받음.

2. 경제동향

□ 캐나다 경제성장률(GDP) 동향 및 전망

- 캐나다 중앙은행, 올해 캐나다 경제성장률 3.9% 전망
 - 국내 코로나19 백신 공급이 확대되고 정부의 관련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2022년 캐나다 2분기 경제 회복세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
 - 2023년과 2024년에 각각 2.75%, 1.74% 수준의 반등세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

□ 실업률 및 소비자 물가 변화

- 캐나다 3월 실업률은 전월대비 0.2%p 하락한 5.3% 기록
 - 이는 전년 동기(7.5%) 대비 약 2.2%p 하락한 수준으로 1976년 비교 가능한 데이터가 나온 이후 가장 낮은 실업률 기록
 - 2021-2022년 정부 규제 완화와 증가하는 국민 백신 접종률*(81.6%)에 따라 실업률은 2022년 1월(6.5%), 2월(5.5%), 3월(5.3%)을 기록하며 완만한 하강 곡선을 보임.

- 캐나다 3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전월대비 1.0%p 상승한 6.7% 기록
 - 이는 1991년 1월(6.9%) 이후 가장 높은 물가상승률로, 교통(11.2%), 주거(6.8%), 식료품(7.7%) 등 주요 8개 품목에서 전년 동기 대비 상승세 기록
 - 특히 식료품 구매 비용은 전년 대비 8.7% 상승하였으며 이는 2009년 3월 7.9% 상승 이후 가장 큰 증가폭임.
 - 캐나다 10개 모든 주에서 전월보다 빠른 속도로 물가가 상승했으며, 온타리오(+7.0%) 주는 4위를 차지

- 캐나다 3월 휘발유 가격은 전월 대비 11.8% 상승
 - 러-우 분쟁 사태에 따른 석유 공급 불확실성에 의한 국제 유가 급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39.8% 상승
 - 휘발유 가격을 제외한 3월 물가 상승률은 5.5% 수준 기록

- 3월 캐나다 인플레이션은 예상보다 빠르게 가속되어 31년 만에 최고치 경신
 - 3월 인플레이션율은 6.7%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전월 대비 1.0%p 상승한 수치이며 경제 분석가들의 예상이었던 6.1%를 훨씬 넘어선 수치임.
 - 코로나19 대유행과 러-우 분쟁이 수요 급증, 공급망 병목 현상과 주요 원자재 가격에 압력을 가해 인플레이션 격화
 - 이에 캐나다 중앙은행은 1.0%로 금리 인상을 발표했으며, 이는 전월 대비 1.3~4배 인상된 수치로 곧 3% 이상으로 추가 인상될 수 있다고 덧붙임.

- * 2022년 5월 기준 확인 가능한 캐나다 국민 2차 백신 접종 완료율에 대한 최신 자료

□ 캐나다의 교역 동향

< 캐나다 주요 수출국 현황 >

(단위: US\$ 천, %)

순위	국가명	2020년	2021년	2022년 (1월~3월)	
		금 액	금 액	금 액	증감률
1	미국	285,522,117	380,193,962	108,767,026	26.9
2	중국	18,855,483	22,377,787	4,548,645	-15.2
3	영국	14,851,236	12,938,329	3,676,466	-7.8
4	일본	9,241,989	11,535,215	3,327,239	33.0
5	한국	3,510,957	5,032,961	1,817,496	63.8
6	멕시코	4,588,062	6,533,161	1,724,460	5.7
7	네덜란드	4,059,184	3,809,613	1,319,698	38.6
8	독일	4,755,144	5,496,148	1,299,889	3.1
9	인도	2,767,320	2,380,218	859,459	105.8
10	노르웨이	1,912,047	2,498,009	799,997	47.5
전체		389,695,187	503,561,596	139,594,048	20.4

주: 증감률은 전년 동기 대비 기준

자료: 캐나다 연방정부 웹사이트

< 캐나다 주요 수입국 현황 >

(단위: US\$ 천, %)

순위	국가명	2020년	2021년	2022년 (1월~3월)	
		금 액	금 액	금 액	증감률
1	미국	197,689,655	237,521,382	63,483,530	14.9
2	중국	57,038,646	68,647,099	17,509,402	14.5
3	멕시코	22,326,358	26,719,877	7,505,213	18.5
4	독일	12,878,080	15,187,279	3,691,862	5.2
5	일본	10,090,110	12,327,485	3,190,404	7.9
6	한국	7,157,447	8,247,287	2,403,248	25.6
7	이탈리아	6,713,914	8,353,904	2,012,593	12.3
8	베트남	6,089,196	7,843,477	1,867,469	6.2
9	대만	4,196,408	6,246,335	1,681,507	39.2
10	스위스	4,409,376	4,543,413	1,527,026	51.0
전체		404,872,077	489,740,415	129,324,000	15.3

주: 증감률은 전년 동기 대비 기준

자료: 캐나다 연방정부 웹사이트

< 캐나다 주요 수출·입 품목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석유와 역청유(원유로 한정) 2. 승용차 3. 석유가스 및 탄화수소 가스 4. 원유를 제외한 석유와 역청유 5. 금 	<ol style="list-style-type: none"> 6. 제재목 7. 자동차 부품 8. 의약품 9. 유연탄(코크스용탄) 10. 칼륨비료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승용차 2. 승용차 부품 3. 석유와 역청유(원유로 한정) 4. 화물자동차 5. 원유를 제외한 석유와 역청유 	<ol style="list-style-type: none"> 6. 자동자료처리기계 7. 전화기, 휴대폰 8. 면역혈청 및 면역물품 9. 의약품 10. 금

주: 순서는 수출·입액 규모 순이며, 자료는 HS CODE 4자리 및 2022년 1~3월 기준
 자료: 캐나다 연방정부 웹사이트

Ⅲ. 한-캐나다 교역 동향

□ 2021년 한-캐나다 교역액은 전년대비 32.4% 증가한 US\$ 130억 8,423만

- 한국의 對 캐나다 수출 및 수입은 각각 US\$ 67억 1,446만, US\$ 63억 6,978만
으로 무역수지는 US\$ 3억 4,468만 흑자를 기록

< 한-캐나다 교역동향 >

(단위: US\$ 천, %)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수 출	4,717,661(-3.4)	5,743,231(21.7)	5,567,589(-3.1)	5,463,996(-1.9)	6,714,457(22.9)
수 입	5,042,593(27.9)	5,753,279(14.1)	5,758,663(0.1)	4,414,692(-23.3)	6,369,776(44.3)
수 지	-324,932	-10,048	-191,074	1,049,304	344,681

주: 괄호 안은 전년대비 증감률

자료: 한국무역협회(KITA)

□ 2022년 1~3월, 한국의 對 캐나다 수출, 전년 동기 대비 25.7% 증가

- 10개 주요 수출 품목 중 전년 동기 대비 7개 품목 모두 수출 증가
 - 평판압연제품(873.1%), 진단용 및 실험용 조제시약(270.9%), 면역혈청 및 면역물품(187.7%), 비합금 평판압연제품(169.1%), 전자집적회로(100.2%), 휴대전화(39.6%), 자주식 불도저 및 그레이더(32.3%) 품목 등 수출 증가
- 코로나19 여파로 증가한 면역혈청 및 면역제품 수출이 2021년에 이어 2022년에도 지속됨.
- 반면, 승용차(-11.5%), 은(-7.2%), 자동차 부품(-5.7%) 등의 품목 수출은 감소

< 對 캐나다 주요품목 수출 동향 >

(단위: US\$ 천, %)

순위	HS코드	품 목	2020년	2021년	2022년 (1월~3월)	
			금 액	금 액	금 액	증감률
1	8703	승용차	2,875,211	2,984,535	689,074	-11.5
2	3002	면역혈청 및 면역물품	90,046	308,025	296,869	187.7
3	8517	휴대전화	223,954	175,031	83,229	39.6
4	3822	진단용 및 실험용 조제시약	72,858	46,494	59,586	270.9
5	7106	은	162,079	94,407	56,699	-7.2
6	8708	자동차 부품	218,351	221,756	56,082	-5.7
7	7208	평판압연제품	21,155	194,546	47,797	873.1
8	7210	비합금 평판압연제품	76,144	140,537	44,297	169.1
9	8542	전자집적회로	88,200	143,658	42,407	100.2
10	8429	자주식 불도저 및 그레이더	90,102	113,329	32,077	32.3
총계			7,157,447	8,247,288	2,401,677	25.7

주: 증감률은 전년 동기 대비
자료: 캐나다 연방정부 웹사이트

□ 2022년 1~3월, 한국의 對 캐나다 수입, 전년 동기 대비 64.0% 증가

- 10개 주요 수입 품목 중 전년 동기 대비 8개 품목에서 수입 증가
 - 유연탄(356.4%), 냉동 소고기(315.9%), 아연 광석 및 농축(267.8%), 철광(47.9%), 니켈 덩어리(47.5%), 밀(27.0%), 동광(13.9%), 돼지고기(5.5%) 등의 품목의 수입액 증가
- 반면, 목재펄프(-10.8%), 등의 품목 수입은 감소

< 對 캐나다 주요품목 수입 동향 >

(단위: US\$ 천, %)

순위	HS코드	품 목	2020년	2021년	2022년 (1월~3월)	
			금 액	금 액	금 액	증감률
1	2701	유연탄	832,480	915,652	658,970	356.4
2	2603	동광	625,580	719,871	248,611	13.9
3	2601	철광	323,868	516,047	192,044	47.9
4	2711	석유가스	14,274	218,719	87,900	N/A
5	0202	냉동소고기	29,888	82,346	47,504	315.9
6	2608	아연 광석 및 농축	36,507	54,529	44,714	267.8
7	7502	니켈 덩어리	44,011	107,467	41,185	47.5
8	1001	밀	70,336	61,849	28,721	27.0
9	0203	돼지고기	98,956	121,741	28,679	5.6
10	4705	목재펄프	98,789	134,835	28,081	-10.8
총계			2,184,644	2,931,084	1,406,276	64.0

주: 증감률은 전년 동기 대비 기준
자료: 캐나다 연방정부 웹사이트

□ 대한수입규제 동향

- 캐나다의 대한 수입규제 품목은 총 13건이며, 규제 유형별로는 반덤핑 12건 및 상계관세 1건*으로 집계
 - 품목별로는 철강 및 금속제품이 11건, 전기전자 (변압기) 2건임.
 - * 한국산 냉연강판은 반덤핑 및 상계관세 모두 해당
 - 동계관연결구류는 '21년 11월 수입규제 부과기관이 종료되었지만 현재 재심중으로' 22년 9월 중순 결과 발표 예정

- 캐나다는 저가 철강제품 유입을 우려하여 수입규제를 지속 강화 중
 - 중국과 한국산 철강제품의 공급망이 긴밀하게 통합되었다고 믿고 있어 우리 기업들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

< 캐나다의 대한수입규제 현황 >

구 분	조사개시	최종판정	품 목	내 용
구조용 강관	'03.3.21 .	'03.11.17.	철강·금속	- 관세율 : 89% - 부과기간 : ~'24.10.15.
동제관 연결구류	'06.6.8.	'07.1.18.	철강·금속	- 관세율 : 242% - 부과기간 : ~'21.11.27. - 일몰재심중 ('22.9.14. 발표 예정)
유입식 변압기	'12.4.23 .	'12.10.22.	전기·전자	- 관세율 : 101% - 부과기간 : ~'23.5.30.
소형 전력 변압기	'21.4.15	'21.11.25.	전기·전자	- 관세율 : 73.1% - 부과기간 : '26.12.23
용접탄소강관	'12.5.14 .	'12.11.9.	철강·금속	- 관세율 : 54.2% - 부과기간 : ~'23.10.14.
동관	'13.5.22 .	'13.11.18.	철강·금속	- 관세율 : 82.4% - 부과기간 : ~'24.9.24.
후판(열연강판)	'13.9.5.	'14.4.17.	철강·금속	- 관세율 : 59.7% - 부과기간: ~'25.3.12.
콘크리트 보강용 철근	'14.6.13 .	'15.1.9.	철강·금속	- 관세율 : 41% - 부과기간 : ~'25.10.13.
유정용 강관	'14.7.21 .	'15.3.3.	철강·금속	- 관세율 : 37.4% - 부과기간 : ~'25.12.29.
산업용 철강 부품	'16.9.20 .	'17.4.25.	철강·금속	- 관세율 : 45.8% - 부과기간 : ~'22.5.24.
탄소합금강관	'17.6.8.	'17.12.5.	철강·금속	- 관세율 : 88.1% - 부과기간 : ~'23.1.3.
냉연강판	'18.5.25 .	'18.12.21.	철강·금속	- 관세율 : 53% - 1톤당 86,733원의 상계관세 부과 - 부과기간 : ~'23.12.20.

자료 : 캐나다 국경관리청(CBSA)

□ 2021년 4분기 한-캐나다 FTA(발효: '15.1.1) 활용률 95.3% 기록

- 한국의 對 캐나다 주요 수출 품목은 자동차, 자동차 부품, 철강 및 금속제품, 전자제품, 휴대전화 등
 - 주요 수입 품목은 유연탄, 광물, 펄프, 곡류, 육류 등으로 캐나다의 주요 1차 산업 제품으로 구성됨.

- 한-캐나다 FTA 발효 5년 차 관세 철폐 품목은 타이어, 건축재, 가공식품 등으로 2019년 1월 1일부터 무관세 적용 중
 - 협정 발효 후 10년 이내로 97.5%(품목 수 기준)에 대한 관세가 철폐될 예정
 - 10년 차 관세 철폐 품목으로는 1인승 승용차, 기타 차량 등이 포함

< 양허 단계별 주요품목 >

한국 양허품목	양허단계	캐나다 양허품목
승용차, 자동차부품, 석유화학제품, 섬유·의류, 바닷가재(냉동), 면류 등	즉시 철폐	자동차부품, 컬러TV, 진공청소기, 타일, 가공식품(라면, 간장), 광학기기 등
제재목, 의료기기, 밸브, 합성수지, 식료품(빵, 포도주, 마요네즈) 등	3년 철폐	승용차, 자동차부품, 화장품, 냉장고, 섬유·의류, 바닥재, 농산물(일부) 등
타이어, 돼지고기(냉장, 냉동), 베어링, 기타 화장품, 냉동수산물(대구, 농어 등)	5년 철폐	타이어, 신발, 양말, 축전지, 전구, 기타 조명기기, 가공식품(전분분말, 케첩, 아이스크림) 등
제재목, 합판, 의료용전자기기, 건축용목제품, 농산물(감자, 고구마, 사과, 복숭아) 등	10년 철폐	기타차량, 승용차(1인승)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FTA포탈(www.fta.go.kr)

IV. 현지체류 참고사항

□ 교통

- (택시) 시내에는 택시 승강장이 따로 없어 노상에서 자유롭게 택시를 잡을 수 있으며, 주택가나 교외 지역은 콜택시를 이용하는 것이 편리함.
 - 기본요금: C\$4.25 (약 4,160원)
 - 요금 지불 시 15% 정도의 팁을 추가하는 것이 관행

- (공유차량) 스마트폰 앱으로 간편하게 차량을 요청할 수 있는 우버(Uber), 리프트(Lyft) 등의 서비스가 대도시를 중심으로 확산되는 추세
 - 수요가 많은 시간대에는 기본요금의 1.8~2.5배의 할증료가 추가됨.
 - 주(州)별 교통법이 상이해 우버(Uber)는 서스캐처원, 매니토바, 노바스코샤 주 등 일부 지역에서는 사용이 제한되며, 리프트(Lyft)는 온타리오,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에서만 사용이 가능함.

- (대중교통) 토론토의 대표적인 대중교통 수단인 TTC(Toronto Transit Commission)는 버스, 지하철 및 경전철(Street car) 등이 연계되어 있으며, 환승 티켓(Transfer) 지참 시 다른 교통수단으로 환승이 가능함.
 - 편도요금: C\$3.25 (약 3,180원)
 - 필요에 따라 1일, 1주일, 한 달, 1년 패스 구매 가능
 - 버스와 경전철 탑승 시 정확한 요금을 지불해야 함.
(규정상 운전기사의 현금 취급이 금지되고 있어 거스름돈을 받지 못할 수 있음.)
 - 버스, 경전철, 지하철 등 노선도는 TTC 웹사이트(www.ttc.ca/Routes/index.jsp)

- (시외버스) 토론토 외곽의 주요 도시들은 각각의 대중교통 체계를 구축하고 있음.
 - 주요 도시별 대중교통 정보 확인 웹사이트
 - Mississauga Transit : www.mississauga.ca
 - York Region Transit : www.yorkregiontransit.com
 - Go Transit : www.gotransit.com

- (렌트카) 국제운전면허증과 신용카드만으로 승용차(보험 가입) 대여 가능

- 단, 운전자가 만 25세 미만일 경우에는 주행거리 등 일부 제한이 있을 수 있음.
- 현지인들이 자주 이용하는 업체는 AVIS, Hertz 및 Enterprise 등

□ 화폐 및 환전

- (화폐) 캐나다 달러(CAD, Canadian Dollar)는 통상 "\$"로 표기되나, 미국 달러와 함께 명시될 경우 "C\$"로 표기
 - 화폐 종류는 미국과 유사한데, 지폐는 \$100, \$50, \$20, \$10, \$5 등 다섯 종류가 사용되며, 동전은 \$2, \$1, ¢25, ¢10, ¢5가 유통됨.
 - ¢1 동전은 2013년부터 유통 중단됨.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거래 시에는 ¢1 단위까지 계산하나, 현금 결제의 경우 ¢5 단위로 반올림하여 사용함.
- (환율) 미화 대비 환율은 1CAD 당 0.79USD이며, 원화 대비 환율은 1CAD 당 979원 수준 (2022년 5월 평균 환율 기준)
- (환전) 은행, 공항 환전소, 호텔 등에서 당일 환율에 따라 환전 가능
 - 관광지외의 일부 업소, 공항 면세점 등에서는 미화를 받기도 하나 적용환율에서 다소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

□ 전화

- (일반전화) 시내 통화 시 전화번호 10자리를 그대로 누르면 되나, 외곽이나 장거리 통화를 할 때에는 전화번호 앞에 '1'을 추가로 누름.
 - 토론토 시내전화 : 전화번호 10자리 (XXX-XXX-XXXX)
 - 미국, 시외전화, 장거리전화 : 1 + 지역 번호(3자리) + 전화번호(7자리)
 - 한국으로 국제전화 시 : 011 + 82(한국) + 2(서울) + 전화번호
 - 한국으로 수신자 부담(Collect Call) 전화 시 : +1-888-431-5699 → 1번 메뉴
- (공중전화) 전화번호를 누르면 공중전화 화면에 필요한 요금이 안내되며, 이 때 필요한 금액을 동전으로 넣으면 통화 가능
 - 시내전화 기본요금: ¢50
- (수신자 부담, Collect Call) 공중전화 0번을 눌러 전화 교환원에게 수신자

부담임을 알린 후, 통화하고자 하는 전화번호를 알려주면 교환원이 수신자에게 요금부담 의사를 확인한 후 연결해 줍니다.

□ 팁(Tip) 관행

- (식당) 셀프서비스 식당을 제외하고는 청구금액의 15% 상당을 팁으로 지불하는 것이 일반적
 - 청구 금액에 팁을 미리 적용하는 음식점도 있으므로 이중으로 지불하지 않도록 유의
- (택시) 요금이 적은 경우도 청구금액의 10~15% 정도를 팁으로 지불하는 것이 관행
 - 트렁크에 무거운 짐을 싣거나 택시 기사가 직접 짐을 운반할 경우, 추가 요금을 요구할 수 있으니 이용 전에 확인할 것을 추천함.
- (호텔) 숙박시설에서 포터가 짐을 옮겨줄 경우에는 짐 1개당 C\$1, 침실 청소 시에는 테이블 위에 C\$1~2정도 놓아두는 것이 적당함.
 - 일반적으로 룸서비스를 요청한 경우에는 요금의 10~15%를 팁으로 지불하며, 수건이나 담요 등을 추가로 요청할 때에도 C\$1정도의 팁을 지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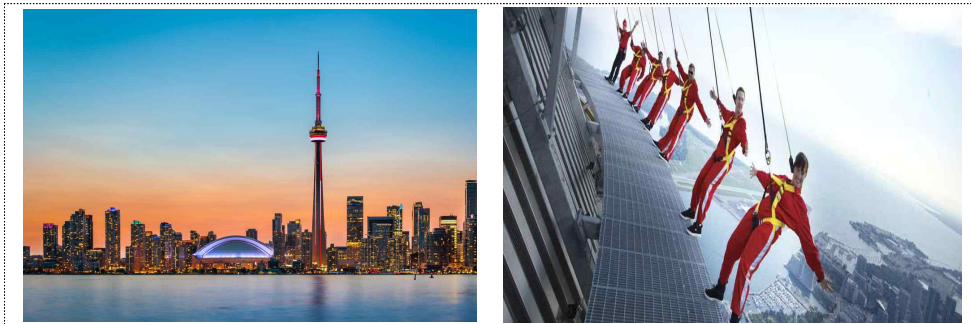
□ 기타사항

- (주류) 온타리오 주는 주류 판매 및 유통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 주정부가 운영하는 전문매장(LCBO, Beer Store, Wine Rack) 또는 일부 슈퍼마켓에서만 구입 가능
 - 호텔이나 식당, 술집 등에서는 일정 시간(새벽 2시)까지만 주류를 판매함.
 - 공원이나 대로 등 공공장소에서의 음주는 불법이므로 주의해야 함.
- (시차) 온타리오 주는 서울보다 14시간이 느리며, 일광 절약(DST)* 기간(3월~11월)에는 13시간 시차 적용
 - * Daylight Saving Time(DST): 주간 활동 시간을 늘리기 위해 시행되며, 통상적으로 매년 3월 둘째 주 일요일부터 11월 둘째 주 일요일까지 시행
- (소비세) 상품과 용역에 부과되는 세금은 주별로 상이하며, 온타리오 주는 대부분의 상품은 구입 시 13%의 통합소비세(HST)가 별도로 부과됨.
 -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12%), 퀘벡 주(14.975%), 앨버타 주(5%), 노바스코샤 주(15%) 등
- (전압) 110V로 한국산 전자제품의 경우 변압기를 미리 준비해야 함.

□ 주요 명소

① CN Tower(CN 타워)

- 토론토 시내 중심부에 위치해 있는 캐나다에서 가장 높은 송출탑(553.3m)
 - 전망대에서 미국으로 연결되는 온타리오 호수와 대서양으로 이어지는 세인트 로렌스 강(Saint Lawrence River)을 비롯해 시내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음.
 - 이 외에도 케이블로 몸을 연결하여 CN 타워를 걷는 체험과 360도 회전 레스토랑 등 다양한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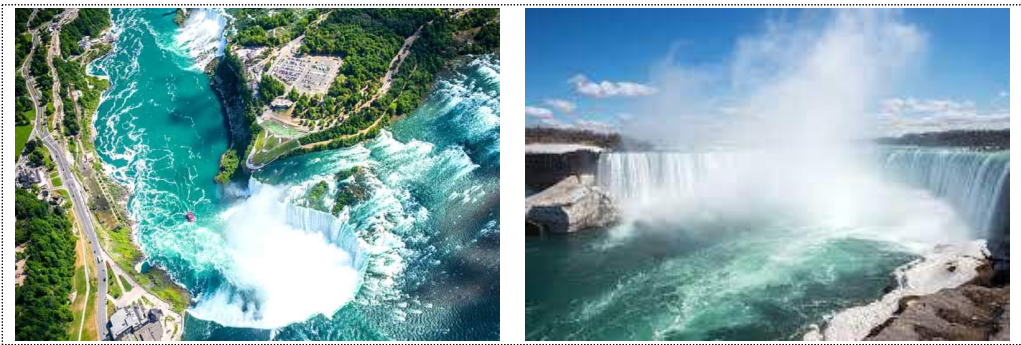
② Toronto Island(토론토 아일랜드)

- 1858년 태풍으로 인해 생긴 섬으로 다운타운 최남단의 호숫가에 위치
 - 9개의 크고 작은 섬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중 센터 아일랜드(Centre Island)는 놀이 공원과 산책로, 피크닉을 즐기기에 좋은 잔디밭과 해변 등이 있음.
 - 유람선을 타고 섬 안으로 들어가면 탁 트이는 토론토 시내를 한눈에 볼 수 있음.
 - 1인 왕복 C\$8.50(약 7,834원)



③ Niagara Falls(나이아가라 폭포)

- 캐나다와 미국 국경 사이에 위치해있으며, 5대 호수 중 하나인 에리 호수(Lake Erie)와 온타리오 호수(Lake Ontario)를 연결함.
- 고트섬(Goat Island)을 사이에 두고 캐나다와 아메리카 폭포로 나뉘지는데, 말굽 모양의 캐나다 폭포가 더 웅대하여 인기가 높음.
- 나이아가라 폭포를 중심으로 카지노, 리조트, 쇼핑몰 등이 집중되어 있으며 매년 수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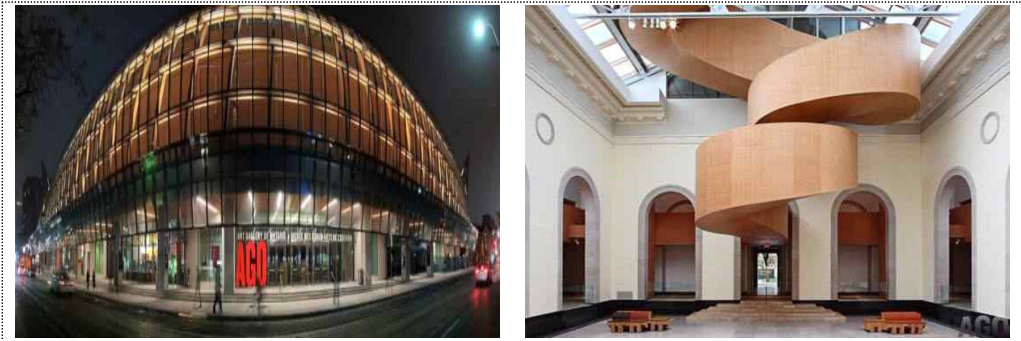
④ Kensington Market(켄싱턴 시장)

- 토론토를 대표하는 시장 중 하나로, 2006년 캐나다 역사 유적지(National Historic Site of Canada)로 지정됨.
- 1920~30년대에는 유대인 시장이었으나,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대인들이 다른 곳으로 이주하면서 중남미, 소말리아, 수단, 이란, 베트남 등 정치적 난민 출신 이민자들이 새롭게 자리 잡은 시장
- 현재는 카리브해, 유럽, 남미, 중동, 아시아 각지의 다양한 제품과 빈티지 제품들을 파는 가게들이 줄지어 있어 토론토의 다문화를 뚜렷하게 느낄 수 있는 장소로 꼽힘.



⑤ Art Gallery of Ontario(온타리오 아트 갤러리)

- 1900년에 개장한 캐나다 대표 사설 미술관으로, 캐나다를 대표하는 7명의 화가들(Group of 7)의 작품을 소장한 것으로 유명
 - 이 외에도 클로드 모네(Claude Monet), 빈센트 반 고흐(Vincent van Gogh), 파블로 피카소(Pablo Picasso) 등 유럽 대표 작가들의 작품도 전시되어 있음.
 - 중세시대부터 르네상스, 현대 미술까지 약 9만 점 이상의 다양한 작품들을 보유하고 있음.
 - 이 외에도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품들을 선보이는 특별 전시회가 개최돼 많은 관광객들 및 문화인들에게 인기가 있음.
 - 1인 입장료 C\$25 (약 24,481원), 25세 이하는 무료



V. 무역관 오시는 방법

□ 토론토 무역관 연락처

- 주소 : 2 St. Clair Avenue West, Suite 800, Toronto, Ontario, M4V 1L5
Canada
- 전화 : 1-416-368-3399
- 팩스 : 1-416-368-2893
- 근무 시간 : 월요일~금요일 09:00~17:00

□ 토론토 무역관 오시는 방법

- 택시
 - 택시에 승차하여 운전 기사에게 무역관 주소(2 St. Clair Avenue West, Toronto)를 알려 주면 무역관 앞까지 안내함.
 - 공항택시 요금은 C\$57~82 내외이며, 팁(10~15%)을 포함할 시 총 비용은 C\$63~88 가량 소요
- 공항열차(Union Pearson Express)
 - 공항열차 운행 시간 : 평일 05:42~23:27, 주말 06:27~23:27 (2022년 5월 기준)
 - 공항 출구(Terminal 1)로 나와 Pearson(Airport)역에서 열차(직행) 승차
 - * 매 30분마다 운행되며, 공항에서 무역관까지의 소요시간은 약 46분
 - 1인 편도요금은 C\$12.35이며, 티켓은 안내데스크 또는 무인 발급기에서 구매
 - Union(Downtown)역에서 하차 후 지하철역(TTC)에서 Yellow Line(Finch 방면) 탑승 및 St. Clair 역에서 하차
 - 출구를 빠져나와 2 St. Clair Ave. West, 8층에 위치한 무역관 사무실 도착

VI. 유관기관 및 숙소/식당

1. 현지 유관기관

주 캐나다 대한민국 대사관

- 주소 : 150 Boteler Street, Ottawa, Ontario, K1N 5A6 Canada
- 전화/팩스 : 1-613-244-5010 / 1-613-986-0482
- 홈페이지 : <http://can-ottawa.mofa.go.kr>

주 토론토 대한민국 총영사관

- 주소 : 555 Avenue Road, Toronto, Ontario, M4V 2J7 Canada
- 전화/팩스 : 1-416-920-3809 / 1-416-994-4490
- 홈페이지 : <http://overseas.mofa.go.kr/ca-toronto-ko/index.do>

주 몬트리올 대한민국 총영사관

- 주소 : Suite 3600, 1250 René-Lévesque Boulevard West, Montreal, Quebec, H3B 4W8 Canada
- 전화/팩스 : 1-514-845-2555 / 1-514-261-4677
- 홈페이지 : <http://overseas.mofa.go.kr/ca-montreal-ko/index.do>

2. 숙소/식당

□ 주요호텔

호텔 명	주소(위치)	전화번호	가격(CAD)
Chelsea Hotel	33 Gerrard St. W. (시내)	(416) 595-1975	242~285
Marriott Downtown	525 Bay St. (시내)	(416) 597-9200	409~481
Hotel Novotel North York	3 Park Home Ave. (북부)	(416) 733-2929	259~304
Liberty Suites Hotel	7191 Yonge St. (북부)	(905) 604-9400	210~267
Sheraton Toronto Airport	801 Dixon Rd. (서부)	(416) 675-6100	269~316
Westin Toronto Airport	950 Dixon Rd. (서부)	(416) 675-9444	278~327

주: 가격은 기간별로 상이하며, 세금(13%), 숙박세(4%) 및 수수료 미포함된 금액임.
자료: 각 호텔 웹사이트

□ 추천식당

식당 명	주소(위치)	전화번호	종류
아리수	584 Bloor St. W. (시내)	(416) 533-8104	한식
미네르바 부엌이	700 Bloor St. (시내)	(416) 538-3030	한식
김치하우스	149 Dundas St. W. (시내)	(416) 599-1989	한식
K-Wok	730 Yonge St. (시내)	(647) 350-5965	중식·해산물
Yamato	24 Bellair St. (시내)	(416) 927-0077	일식
Miku	10 Bay St. #105 (시내)	(647) 347-7347	일식
La Maquette	111 King St. E. (시내)	(647) 361-9666	프랑스
조선옥	7353 Yonge St. (북부)	(905) 707-8426	한식
서울관(스틸스)	180 Steeles Ave. W. #24 (북부)	(905) 709-1593	한식

Mandarin	2200 Yonge St. (미드타운)	(416) 486-2222	중식 뷔페
서울관(더프린)	3220 Dufferin St. (서부)	(416) 782-4405	한식·일식
7 West Café	7 Charles St. W. (시내)	(416) 928-9041	양식
이치반	15 Spring Garden Ave (북부)	(416) 512-9014	한식
De Mello Coffee	2489 Yonge St. (시내)	(416) 556-5393	카페
Coffee Lunar	920 Yonge St. #6(시내)	N/A	카페
The Haam	342 Adelaide St. W (시내)	(416) 977-7258	일식·멕시코칸

VII. 무역관 직원 연락처

☐ 대표전화 : 1-416-368-3399

성명	직위	담당 업무	휴대전화(내선)
이광호	관장	무역관 업무 총괄	1-437-234-1679 (ext. 201)
노한상	부관장	마케팅총괄, 기획예산, 미래차(맞춤형수출)	1-647-294-0129 (ext. 202)
문선준	과장	투자유치, 취업, 창업, 프로젝트, 공공조달	1-647-274-6250 (ext. 204)
장민영	과장	조사, 총무, 정산, KDM	1-437-533-8502 (ext. 203)

최종 수정 : 2022. 6.

해외출장 가이드



www.kotra.or.kr